찬양 :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95장)

1.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생각하지 못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행 16장)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바울을 기억하고 섬기기 위해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교회에 감사하며, 그들을 섬기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건강을 회복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했습니다. 섬김은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는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바울은 또한 빌립보교회의 화목을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 4:2) 우리는 교회의 화목을 위해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며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주목할 것은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충만한 CPC를 위해 순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